

한국 봉제 산업의 해외 진출 현황

서추연

동아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Current Status of Global Expansion of Korean Sewing Industry

Chuyeon Suh

Dept. of Fashion Design, Dong-A University

1. 서론

우리나라의 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많은 시간과 노동력에 의존하는 봉제 산업은 점차 쇠퇴하기 시작하였으며, 국내에서 설 자리를 잃은 봉제 업체들은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중남미 등 인건비가 싸며, 생산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해외로 산업기지를 이전하고 있다. 특히 중국시장이 개방되면서 세계 각국의 바이어들이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 대거 중국으로 몰려들면서 중국은 전 세계 섬유시장의 30%를 순식간에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FTA 체결로 다시 미국 시장에서 수출 경쟁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협정이 본격 발효하게 되면 대미 수출도 다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국내 섬유 봉제 산업도 다시 활기를 찾아 생산성 증가는 물론 채산성 개선도 예상되고 있다(보빈저널, 2007.5).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 봉제 산업의 해외 진출 배경 및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의 봉제 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2. 한국 봉제 산업의 해외 진출 배경

1980년 이후의 우리나라 시대별 봉제 산업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표 1>과 같다(권덕일, 2004). 1970년대 우리나라 산업의 선두주자였던 봉제 산업은 주로 OEM방식의 해외수출을 담당하였으며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수출

이 감소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비지출이 증대되면서 내수시장의 호황을 누리게 되었다. 또한,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내셔널브랜드 런칭이 증가됨에 따라 생산업체의 수요가 부족한 상태에 이르렀으며 어패럴 생산 공장의 설비투자가 증대되었다. 그러나 1997년 IMF를 전후하여 생산업체 및 국내 브랜드의 부도가 잇따르게 되었고 일자리를 잃은 숙련공들은 업종을 전환하게 되었으며, 이때부터 봉제 산업의 해외진출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원가 및 임가공의 절감을 위해 해외진출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중국은 시장개방과 더불어 가장 선호하는 해외 봉제 산업 기지로 부상되었다. 그러나 2004년 WTO 원산지 규정이 제정되면서 봉제 기준으로 원산지를 표기하게 됨에 따라 2004년 3월 1일부터 'Made in Korea'에서 'Made in China'로 품질라벨이 바뀌게 되어 일부 상품은 Korea 상표 부착을 위해 국내로 다시 돌아와 국내 봉제 산업의 생산성이 다소 증가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5년 2월 의류산업 협회가 산업자원부에 제출한 '의류봉제산업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기준으로 의류 제조 업체는 전체 제조업의 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5인 이상 9인 이하의 영세 규모 업체의 비중은 제조업 전체의 60.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고용현황은 91년 대비 34.3%가 감소하였으며, 이에 비해 임금현황은 91년 대비 414%로 급상승하여 가격경쟁력 약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생산업체의 해외투자는 2004년 말 기준, 1,792건에 약 1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표 1. 우리나라 봉제 산업의 시대별 현황^a

구분 년도	내 용	비 고
1980 ~ 19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생산이 감소하면서 어패럴과 시장 생산이 증가 · 수출로 경험이 풍부한 숙련공 인력이 넘치는 시기 · 구로, 인천, 성남 등지의 대형공장이 무너지고 새로운 형태의 중·소형 공장 탄생 (봉천공, 신림동, 성남 등) 	<p><성장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보메, 이환실루엣벨라, 논노 · 생산형태: 본 공장 운영
1987 ~ 19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림픽 이후 국내 브랜드 런칭 증가 · 오더 증가, 생산업체 부족 현상 · 임가공비(판매가 10% 이상) · 어패럴 생산공장 설비투자 집중됨 	<p><전성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섬, 오브제, 신원, 온앤온 · 생산형태: 외주, 본 공장
1997 ~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랜드 부도(생산업체 부도) · 임가공 하락 · 고급인력(숙련공)→업종전환/해외 진출 시작 · 중국 생산 시작 기틀 마련됨 · 원가 및 임가공 절감(해외생산 30%) 	<p><하락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생산 공장 공동화 현상 · 생산형태: 외주→본 공장 축소
2004 ~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비 노후화 · 인력 노령화 · 오더(Spot Reorder) 생산 납기 단축 · 디자인, 소재, 난이도 심각한 수준(다품종 소량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적인 문제→시스템변화 모색 · 생산형태: 국내 및 해외생산 안정된 생산 시스템 전환이 필요함

a: 권덕일. (2004. 3). 국내 어패럴 봉제 산업의 현황. 한일 어패럴 봉제 산업 현황 세미나 발표자료.

조사되었다(어패럴뉴스, 2005.9.26일자 18면).

이러한 여건에 따라 중국을 시작으로 북한의 개성공단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봉제 산업은 보다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을 찾아 해외 각지로 이전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내의 봉제 산업은 공동화(空洞化)현상을 빚고 있다.

3. 한국 봉제 산업의 해외 진출 현황

3-1. 중국

우리나라는 1989년부터 해외여행 전면 자유화가 이루어 졌으며, 이때부터 중국 입국이 자유로워지기 시작하였다. IMF이후 봉제공장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면서 생산업체들은 보다 저렴한 인건비와 풍부한 노동력을 찾기 위해 중국으로의 진출을 선호하게 되었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내 여성복 봉제공장들은 인력난으로 중국 진출의 가속화를 이루었다. 특히 가격 경쟁을 위해 핸드메이드 공장이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중국 공장이전은 활기를 띠었으나 고난이도의 여성복은 국내 생산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높은 임금과 숙련공들의 고령화로 생산력의 한계성을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 공장에 한국 기술자들을 파견하여 봉제 기술을 전수하면서 중국 봉제의 기술력도 한층 높아지게 되었다(“여성복 봉제 공장”.2004.4). 또한 봉제 산업의 중국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경쟁력 있는 프로모션사의 중국 생산 설비 투자가 늘어났으며, 국내 프로모션사의 해외 소싱 실력과 노하우가 축적되면서 원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가중되었다(“중국 봉제공장”. 2006.8.28).

중국현지에 설립된 한국인 봉제공장은 독자, 합자 또는 임대형태로 정확한 데이터가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2002년 자료에 의하면 산동성 지역 200개 업체 정도, 남방지역 100~150개 업체, 북방지역 200~300개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권덕일. 2004).

그러나 국내의 경기 침체가 내수 브랜드의 매출부진으로 이어지면서 중국에 직접 진출한 봉제기업의 채산성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면서 2007년에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 봉제기업의 가동율이 30% 이상 감소되었다. 또한 중국의 강점으로 손꼽히던 저렴한 인건비도 25% 이상 오르고 있으며, 중국 내수산업발전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투자유지정책이 바뀌면서 봉제업체의 인력모집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중진출 봉제기업 가동율 급감”. 2007.4.2). 이러한 중국 내수 시장의 지각변동은 올림픽을 계기로 더욱 가시화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은 우리나라가 1988년에 경험한 바와 같이 중국의 국제화를 본격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더욱이 중국은 시장의 글로벌화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해외 인력 및 자원의 유입으로 주요 도시의 국제화가 예상되며, 이는 산업구조와 그에 따른 인구 구조를 바꾸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베이징 올림픽 & 중국의 변화”. 2007.7.28).

그러므로 중국도 과거 우리나라가 그랬던 것처럼 점차 서비스산업이 강세를 보이면서 많은 시간과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봉제산업은 점차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이며, 또한 중국의 봉제 기술이 어느 정도의 수준을 보유하게 되면서 자국

의 브랜드를 위한 봉제 산업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중국 사회의 소비 활성화로 인건비 또한 높아짐에 따라 중국이 아닌 제 3국으로의 해외진출도 시작되고 있는 실정이다.

3-2. 중남미권

1) 멕시코

섬유의류산업은 멕시코 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섬유류의 경우, 전체 제조업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이며, 수출액은 50억불, 전체 고용 인원은 12만 2천명에 이른다. 의류산업은 제조업 GDP의 2.8%를 차지하고 수출액은 52억불, 고용인원은 40만명 수준이다. 1999~2005년 멕시코 의류산업에 투자된 외국자본은 18억불로, 이중 77.7%가 미국에 의한 투자이다. KOTRA에 따르면, 현재 멕시코 섬유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 기업은 40개 업체 정도인데, 이 중 20개 업체는 멕시코시에 위치한 무역업체이고, 과나후아토에서 신발제조 관련 부품생산을 하는 업체가 11개사, 그리고 푸에블라에 있는 봉제 업체가 6개사 정도로 한국기업이 멕시코 의류산업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곽재성, 2007).

2) 과테말라

한국의 중미 섬유류산업에 대한 투자는 과테말라에 집중되어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의류, 봉제분야의 업체는 약 250개사, 이 공장에 필요한 재료를 공급하는 업체까지 포함하면 약 350개의 공장이 운영중이며, 약 3000명 정도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한국의 대형공장도 6개 업체이다. 이곳은 다른 중미국가와 다르게 한국 기업의 비중이 높으며, 한국 대기업의 자회사도 진출해 있고, 이들과 하청계약을 맺은 한인교포에 의해 운영되는 소규모 봉제공장도 많다(곽재성, 2007). 그러나 섬유 쿼터제 폐지로 인하여 2005년 과테말라의 봉제산업은 10개사 중 6개사가 구조조정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과테말라, 봉제산업 위기”. 2005). 과테말라는 봉제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구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중국의 여파에 대응하기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더 이상 한국 기업의 봉제산업 진출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3-3. 아시아권

1) 베트남

중국과 과테말라 등을 떠돌았던 봉제 섬유산업이 베트남

하노이를 중심으로 활성화되었다. 2002년부터 하노이 인근 빈푹성 푸토성 공단에 임가공 형태로 진출한 한국봉제업체들은 회사별로 수 천명의 현지 근로자를 고용하여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하노이의 장점은 고졸이상 학력을 가진 풍부한 인적자원과 베트남정부는 물론 지방정부까지 외자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직업학교를 통한 기술교육, 군 통제에 의한 치안지원 등을 아끼지 않고 있다. (주)신원의 경우, 2200명 현지 근로자를 14명의 한국인 관리하고 있으며, 기술수준 역시 만족할 만 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현재 20개 생산라인이 부족해 10개의 라인을 더 증설하였으며, 추가증설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베트남의 가장 큰 장점은 중국 대비 인건비가 50% 수준이라는 점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된다(봉제업계 새 기지, 하노이, 2007.11). 그러나 ‘Next China’로 각광을 받고 있던 베트남도 2007년 하반기부터 직접 투자가 급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대(對) 베트남 최대 투자국이었으나 2008년 상반기에는 10위로 내려앉았다. 한국의 투자가 급감하게 된 최대의 원인은 베트남의 경제위기설과 인건비의 급상승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한국은 섬유, 봉제와 부동산에만 투자가 집중되어 있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더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은 약 1500여개이며, 이중 섬유, 봉제 업종은 약 1/3에 해당하는 500여개 업체가 진출해 있다(“베트남 상륙작전”. 2008.8).

2)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가 봉제 산업의 메카로 뜨고 있다. 국내의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중국으로 이전했던 한국 봉제업체들이 최근 인도네시아로 다시 옮겨가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인건비 상승, 위안화 문제 등 중국에서도 공장을 운영하기 어려워지면서 인도네시아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봉제업체는 공식적으로 227개사로 집계되었다. 이는 인도네시아 전체 봉제업체(720여개) 중 32%를 차지하는 수치이며, 봉제 수출 총 52억 7000만 달러 중 한인 봉제업체가 수출한 금액은 20억 달러로 추산되었다. 인도네시아가 새로운 봉제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이유는 온화한 국민성과 인건비, 인프라 등을 들 수 있다. 인건비의 경우, 중국 칭따오의 최저임금 월 180달러, 평균 임금 월 200달러 수준인 반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역은 최저임금 100달러, 평균임금 120~150달러 정도로 베트남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다(“인니에서 날개짓하는 한국 봉제산업”. 2008.4). 2008년

인도네시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이 주로 종사하고 있는 봉제산업이 전체 섬유 수출의 59.3%를 차지하였고, 봉제는 생산량의 92.6%를 수출하였으며, 주요 수출국은 미국, EU, 일본 등으로 분석되었다(KOTRA 자카르타 무역관, 2008). 베트남보다 인도네시아를 더 선호하는 이유는 베트남의 인건비 상승률이 높아지면서 거의 차이가 없어지고 있으며, 베트남은 IT 산업 등 다른 산업 등과 동시에 발전하고 있으므로 인력수급에 점차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인도네시아는 아직 다른 산업의 발달이 느린 편이라 풍부한 인적자원이 봉제산업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인니에서 날개짓하는 한국 봉제산업”. 2008.4).



그림 1. 인도네시아의 봉제 공장(머니투데이, 2008.4.15일자)

3) 캄보디아

캄보디아는 1992년 UN 캄보디아 잠정통치기구에 의한 평화유지활동 후 제1회 총선거를 통해 1993년 계획경제로부터 시장경제로의 본격적인 전환을 시작하였으며, 그 후 국제원조기관에 의한 지원을 거쳐, 1995년경부터 외자에 의한 섬유 봉제 산업이 급성장하기 시작하였다.

캄보디아의 봉제 산업은 거의 유일한 2차 산업으로 2008년 7월 현재 약 350개의 공장에서 수출용 의류를 생산하고 있다. 그 중 대부분은 중국계 공장이며, 한국 봉제 공장도 35개사 정도가 진출해 있다. 현지 진출 봉제공장들은 캄보디아 섬유 제조업체 협회(GMAC:Garment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Cambodia)를 운영하고 있다. 2007년 기준으로 캄보디아의 의류 수출액은 27억 달러 정도로 총수출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봉제산업의 고용인원은 약 35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2차 산업 총 고용의 41%에 해당되는 것이다(“캄보디아의 주요산업 현황”. 2008.8.13).

그러나 캄보디아의 봉제 기업 중 100% 현지자본은 10% 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대부분의 기업은 100% 기업 또는 합병기업으로 홍콩, 대만, 중국, 싱가포르, 한국 등으로부터의 투자가 두드러졌다. 또한 봉제 생산품은 2005년 섬유

쿼터제가 폐지되면서 캄보디아는 미국과 유럽을 겨냥한 수출기지로서 봉제 산업이 급부상하게 되었으나 미국의 경제 침체로 인해 바이어들의 구매가 줄어들면서 외부요인에 의한 봉제 산업의 위기를 맞고 있다(“캄보디아 봉제산업, 위기에 봉착”. 2008.3.22)

4) 미얀마

미얀마에 진출해 있는 한국 업체의 약 80%가 봉제업체라 할 정도로 봉제 산업이 최대 제조업 분야이며, 외국인 투자 또한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현재 미얀마에는 약 160여 개의 봉제업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얀마의 봉제산업은 CMP(Cutting Making Packing)방식으로 원단 및 부자재를 바이어가 공급해주고 인건비 즉 가공비만 맡는 위탁가공형태이다. 미얀마는 다른 아시아권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저렴한 인건비와 풍부한 노동력으로 봉제산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으나 정치적 불안정 요인이 봉제 산업의 재도약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미얀마, CMP봉제수출액”. 2008.1.3).

3-4. 기타

1) 불가리아

최근, 유럽 내 의류생산기지가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중동부 유럽 국가에서 불가리아 등 남동부 유럽 국가로 이동하는 동진(東進)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동안 유럽 내 의류생산기지 역할을 담당해 왔던 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인건비와 기타 생산비용이 2004년 5월 유럽연합(EU) 가입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자, 서유럽의 의류 생산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인건비와 생산비용이 저렴한 불가리아 등의 남동부 유럽 국가로 생산, 설비를 이전하고 있다. 불가리아가 새로운 의류생산기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남동부 유럽 국가들과 달리 내전이나 정치적 혼란이 없어 사회적, 경제적 안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류업체들의 진출은 극히 저조한 상태이다.

그러나 ‘소비시장으로서의 서유럽과 생산기지로서의 중동부 유럽’이라는 역내 자급자족 체제가 심화되면, 점차 EU 역내교역이 역외교역을 대체하는 무역전환 효과가 나타날 것이므로 우리 업체들이 현지 진출을 등한시하고 직수출에만 의존한다면 중장기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불가리아 진출 협력방법은 원단, 부자재 등의 공급을 들 수 있으며, 의류생산을 불가리아 업체에 아웃소싱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

므로 유럽시장의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업체라면 불가리아에의 투자도 고려해 볼만 하다(이범우, 2007.10).

2) 개성공단

개성공단이 국내 봉제산업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시범단지에 입주한 (주)신원은 2005년 3월 본격적인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2005년 9월 본 단지 1단지 입주대상업체가 선정되었다. 일반 공장용지의 경우, 섬유봉제 업종 74개 업체가 신청한 가운데 11업체가 선정되었으며 가방, 신발, 가죽부문에서는 신청한 16개 업체 중 5개 업체가 입주하게 되었다. 또한 협동화사업단지에는 3개가 입주예정이다. 개성공단의 장점은 인건비로 월평균 57.5달러이며 1년에 5%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베트남 호치민의 43%, 중국 청도의 57.5% 수준이다. 또한 우수한 노동력과 한국 정부로부터 제공되는 금융지원, 투자손실 보조제도 등 베트남이나 중국에 투자한 기업들이 받을 수 없는 혜택이 있으며, 그 외의 장점으로는 동일언어, 지리적 이점 등이 손꼽히고 있다. 그러나 부정적인 요인으로는 정치·군사적 위험, 복층의 불확실성, 원부자재 반·출입 제한 등을 들 수 있으며 원산지 표기 문제와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개성공단이 뜬다”. 2005.9.26).

4. 한국 봉제 산업의 발전 방향

우리나라 봉제 산업의 침체는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다. 70년대 우리나라의 산업을 주도하였던 봉제 산업은 전문 기술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생산 기술 기반 강화대책 강구, 소요 전문기술 인력의 육성 공급 및 신기술의 연구개발 공급 지원 등 각종 예상되는 문제점에 미리 대처하지 못하였다. 이는 섬유산업계의 경영자들과 지도층에서 봉제 산업을 노동집약적 산업으로만 인식하고 저임금 노동력이 풍부한 지역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생각한 결과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의 정책적인 배려, 고급인력 육성 지원, 첨단 IT 기술과 연계된 자동생산 시스템 구축, 고품질 생산을 위한 기획력 및 세계적인 유명브랜드 제품의 생산기지 조성 등으로 새로운 한국 봉제 산업의 위상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라 할 수 있다(이범우, 2003).

이는 해외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의 봉제업체들이 투자

국의 인건비 상승, 봉제 인력 부족, 투자국의 정치·경제적 상황 변화 등에 의한 한계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일본의 경우와 같이, 오히려 국내의 기술개발 및 축적, 자동화 시스템을 통한 인건비 절감 등을 고려해 국내에 투자하는 기업들도 다시 생겨나면서 기술 경쟁력 확립 및 봉제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여성복 산업 경쟁력 조사보고서(한국의류협회, 2007)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봉제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SWOT분석은 <그림 2>와 같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자체 사업자 간의 역할분담(그림 3)이 요구되며, 차별화된 새로운 생산기술기반을 구축하고 전문 기술인력의 육성을 통하여 우리나라 봉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 정부차원에서의 꾸준한 지원과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이범우, 2003, 어패럴뉴스. 2005.9.26일자 19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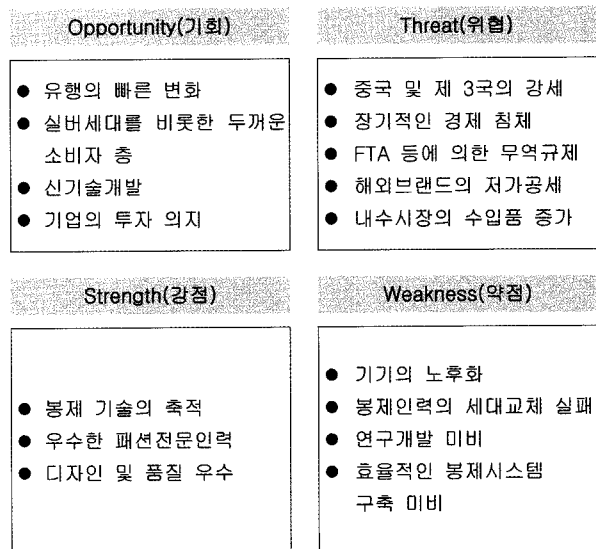


그림 2. 봉제 산업 활성화를 위한 SWOT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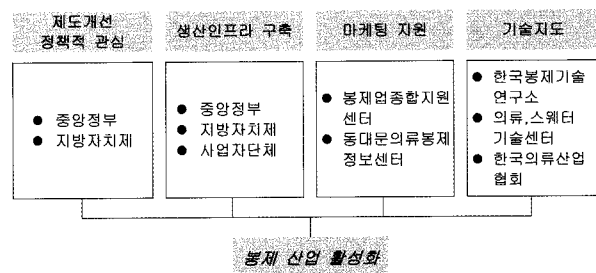


그림 3. 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역할분담 (어패럴뉴스 2005.9.26일자 19면)

5. 결론

우리나라 봉제 산업은 인건비의 증가와 기본 봉제인력의 노령화로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다양한 소재 및 디자인, 패션의 급속한 변화로 기기설비의 대폭적인 교체 및 IT 산업과 연계된 자동봉제 시스템 구축, 봉제인력의 체계적인 교육 및 인력 양성이 없이는 봉제 산업의 발전을 모색하기란 어려운 일이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업계의 지속적인 연구기술개발 및 시설 투자확대, 학계에서의 풍부한 고급 인력 양성 등 산학연을 중심으로 끊임없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개성공단 봉제기지로 급부상.(2007.5.21). 패션인사이트 자료검색일 2008.7.9 자료출처 <http://www.fi.co.kr>

곽재성(2007). 한국의 대 중남미투자자와 진출전략 연구. KORTA(대한무역투자진흥 공사). 118-139. 자료출처 <http://www.kotra.or.kr>

권덕일(2004.3.20). 국내 어패럴 봉제산업 현황. 한일 어패럴 봉제 산업 현황 세미나 발표, 산업자원부

나홍. (2008.2.25). 캄보디아 봉제산업의 전망. 자료검색일 2008.7.9, 자료출처 <http://cafe.daum.net/jacam>

나홍. (2008.2.25). 캄보디아의 도전, 봉제공장24시. 자료검색일 2008.7.9, 자료출 처 <http://cafe.daum.net/jacam>

미얀마, CMP 봉제수출액 전년대비 80% 증가 예상. (2007.12.14). KOTRA GlobalWindow 자료검색일 2008.7.1. 자료출처 <http://www.kotra.or.kr>

베이징 올림픽 & 중국의 변화.(2008.7.28). 어패럴뉴스 9-10면

‘베트남 상륙작전’ 실패하나.(2008.8.25). 조선일보, 경제 B1면. 자료검색일 2008.8.26, 자료출처 <http://db.chosun.com>

봉제업계 새 기지, 하노이.(2007.11.20). 자료검색일 2008.7.9 자료출처 <http://cafe.daum.net/underwearpros>.

봉제산업 활로는 없는가 개성공단이 뜬다. (2005.9.26). 어패럴뉴스 자료검색일 2008.7.9, 자료출처 <http://apparelnews.co.kr>

봉제산업 활로는 없는가 봉제업 공동화 현주소(2005.9.26). 어패럴뉴스 자료검색 일 2008.7.9, 자료출처 <http://apparelnews.co.kr>

봉제산업 활로는 없는가 정부의 활성화 방안. (2005.9.26). 어패럴뉴스. 자료검색일 2008.7.9, 자료출처 <http://apparelnews.co.kr>

봉제산업 활로는 없는가 현장리포. (2005.9.26). 어패럴뉴스 자료검색일 2008.7.9, 자료출처 <http://apparelnews.co.kr>

봉제산업 활로찾기 나실때다. (2006.2.27). 어패럴뉴스 자료검색일 2008.7.9, 자료 출처 <http://apparelnews.co.kr>

봉제업계 새 기지, 하노이.(2007.11.20). 실크노이. 자료검색일 2008.7.1. 자료출처 http://cafe353.daum.net/_c21.

여성복 봉제공장, 중국이전 가속화.(2004. 4.19). 패션인사이트 자료검색일 2008.7.9 자료출처 <http://www.fi.co.kr>

여성복산업 경쟁력 조사(2007). 한국의류산업협회. 자료검색일 2008.7.1 자료출처 <http://www.kaia.or.kr>

이범우.(2003). 한국 봉제산업의 실태와 발전방안. 한국의류산업 학회지. 5(4). 313-317.

이병우.(2007.10.23). 섬유업체, 불가리아로 눈 돌려라. 이코노믹 리뷰.

인니에서 날개짓하는 한국 봉제산업.(2008.4.15). 머니투데이. 자료 검색 일 2008.7.9, 자료출 처 <http://stock.moneytoday.co.kr>

인도네시아, 섬유산업 강화를 위한 정부 역할 강조 필요. (2008.3.4). Indonesian Textile Megazine. 자료검색일 2008.7.1, 자료출처 KOTRA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무역관.

중국방직공업협회(2008.4.11). 2007년 중국의 섬유산업의 동향

중국 봉제공장 직접 투자 증가.(2006.8.28). 패션인사이트. 자료 검색 2008.7.1, 자료출처 <http://www.fi.co.kr>

중국산 의류 정부 직권조사 요청. (2008.1.21). 어패럴뉴스 자료 검색일 2008.7.9, 자료출처 <http://apparelnews.co.kr>

中 진출 봉제기업 가동율 급감.(2007.4.2). 패션인사이트 자료검색 2008.7.1, 자료출처 <http://www.fi.co.kr>

캄보디아 봉제산업 현황.(2006.6.14). 섬유뉴스. 자료검색일 2008.7.1, 자료출처 <http://www.naver.com>

캄보디아 봉제산업, 위기에 봉착.(2008.3.22). 캄보디아뉴스브리핑. 자료검색일 2008.7.9

캄보디아 봉제산업현황.(2006.6.14). 섬유뉴스. 자료검색일 2008.

캄보디아의 주요산업 현황.(2008.8.13). 자료검색일 2008.8.19 자료출처 <http://blog.daum.net/cambodia>

FTA, 봉제산업의 재도약 발판되나?.(2007. 5). 보편저널. 95-103.

서추연

영남대학교 의류학과(학사)
 日本文化女子大學大學院 被服學專攻(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류환경학과(박사)
 현재 동아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부교수
 교신전자 E-mail: chuyeon@dau.ac.kr